

미국 소비자물가: 헤드라인 반등은 에너지 하락폭 축소 영향, 코어는 둔화 유지되며 동결 전망 뒷받침

2026.08.12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결과를 정리한다. 이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 자료 중 하나로, 최근 몇 달간은 헤드라인(전체) 수치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근원(코어) 수치는 완만하게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번 7월치에서도 그 큰 흐름은 유지됐다.

표면 숫자와 실제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 전월비는 6월 -0.4%에서 7월 +0.1%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이 변화폭의 대부분은 새로운 가격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데서 비롯됐다(에너지 전월비 -5.7% → -1.5%, 휘발유 -9.7% → -2.9%). 반면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코어(식료품·에너지 제외) 전월비는 0.0%에서 0.2%로 소폭 올랐는데, 이는 가속이라기보다 6월 한 달 유독 낮았던 자동차보험·의료비 등 항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온 결과에 가깝다. 코어 전년동월비는 2.6%에서 2.5%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이번 상승분의 구성과 관련해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주거비가 7월 전체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인용 사실로만 받아들일 뿐 구체적인 기여도를 추가로 재계산하지는 않는다. 한편 에너지는 전월비로는 하락(-1.5%)했음에도 전년동월비로는 +14.7%로 크게 벌어져 있어 방향이 엇갈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낮은 기저 위에 얹힌 효과로 분류되며 통화정책 판단에서는 어느 쪽이든 할인해서 보는 항목이다.

정책적 함의로 보면 이번 결과는 완만한 호재에 가깝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코어 축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최근 시장이 반영해온 9월·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곧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하우스 관점의 금리 인하 확률은 전 구간에서 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CPI의 함의는 '인하 근거'가 아니라 동결 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는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하위 항목인 자가주거비(OER)와 임대료가 각각 전월비 0.3%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지, 이번에 두드러졌던 항공요금 급등(+2.2%) 같은 변동성 큰 항목이 다음 달에 되돌려지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년동월비가 기저 효과와 함께 어떤 경로를 그리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별도로,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85 달러선을 다시 넘어설 경우 코어와 무관하게 헤드라인 전년동월비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헤드라인만 보고 매파적 판단을 강화하려는 시장 반응이 나타날 위험은 별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발표는 9월 11일 8월분 CPI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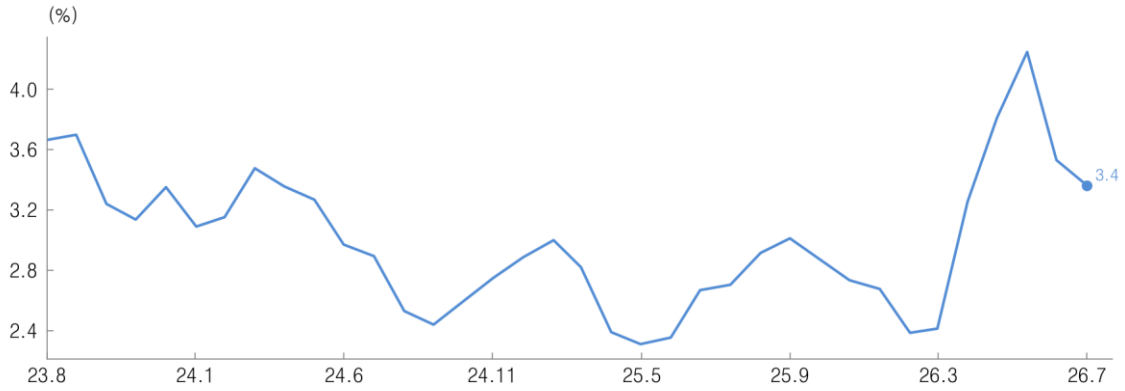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12 (이번)	7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0.1% 상승해 6 월의 0.4% 하락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 반등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하락폭이 줄어든 데 따른 산술적인 효과이고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비 2.6%에서 2.5%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새로운 물가 압력이 생겼다기보다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 가까우며, 이번
2026-07-14	에너지 기저효과가 헤드라인을 -0.7pp 낮췄으나, 코어 CPI의 실질 개선(2.9%→2.6%)은 미세하고 셉터 월간 모멘텀이 약화 중: 7 월 이후 기저효과 역풍과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서비스 인플레이션 Fed의 동결 장기화를 지지한다.
2026-06-10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3.8%→4.2%로 재가속했으나 에너지(YoY 23.5%)가 주 원인이며, 코어 인플레이션은 2.9%로 미온적 둔화, 셉터 경착은 여전히 진행 중.

7 월 CPI 핵심 지표 — 전월비·전년비 요약

항목	전월비(6 월→7 월)	전년비(7 월)	맥락
헤드라인 (전체지수)	-0.4% → +0.1%	+3.4% (6 월 +3.5%)	반등 대부분은 에너지 낙폭 축소 효과
근원 (식품·에너지 제외)	0.0% → +0.2%	+2.5% (6 월 +2.6%)	자동차보험·의료비 되돌림, 둔화 흐름 유지
에너지	-5.7% → -1.5%	+14.7%	전월비·전년비 방향 엇갈림, 기저효과 성격
휘발유	-9.7% → -2.9%	+24.6%	에너지 낙폭 축소를 주도한 항목
주거비	0.1% (6 월과 동일)	+3.2%	BLS: 전체 상승분의 약 3분의 2 차지
서비스(에너지 제외)	0.0% → +0.2%	+3.0%	근원물가 상승을 견인
의료비서비스	-0.1% → +0.6%	+2.7%	6 월 하락에서 반등, 근원 상승 요인 중 하나
항공요금	+0.2% → +2.2%	+25.5%	변동성 큰 항목, 다음 달 되돌림 여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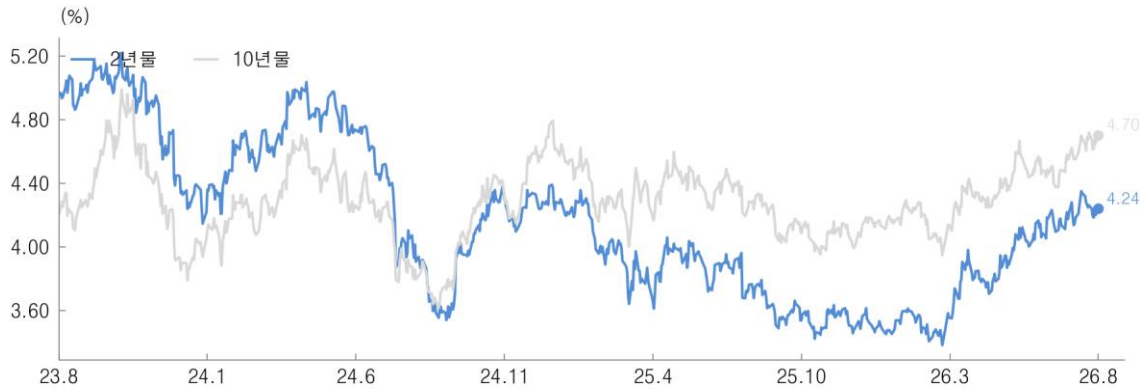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근원 전월대비 (%)	0.2
헤드라인 전년대비 (%)	3.4
헤드라인 전월대비 (%)	0.1

미국 CPI 상승률(전년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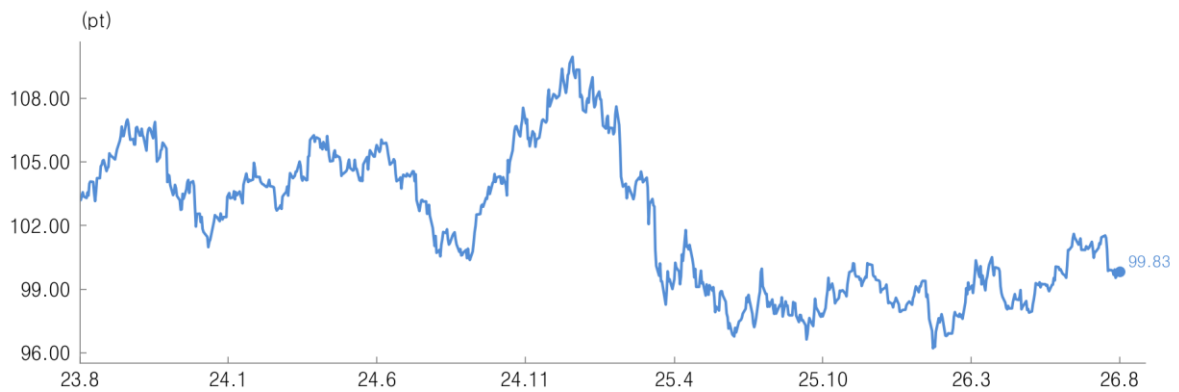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